

# 광주 대전환 TF 내달 출범... 그린·스마트·편 도시 만든다

광주 메가시티 조성 행정력 결집  
기존 외부 전문가 중심 구성  
'편' 방침... 재미있는 도시 준비

광주시가 빛고를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특별 테스크포스(TF)팀을 다음달 중으로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광주와 전남 통합과 광주와 인근 시·군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을 비롯해 녹색산업과 인공지능(AI), 즐길거리를 더한 '그린·스마트·편(FUN)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광주만의 랜드마크와 복합쇼핑몰 건립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2일 기자들과의



이용섭 광주시장이 출입기자 차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광주시

차담회에서 "혁신적 발전과 브랜드 비전으로 광주의 미래 지도를 바꿔 놓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광주 대전환준비 TF팀을 12월 초 발족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TF팀은 기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3년째 운영중인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우선 "민선7기 시정 슬로건인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밑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날갯짓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랜드 디자인과 포스트 코로나 차원에서 광주·전남 통합과 광주와 인근 5개 지역, 즉 나주·화순·담양·장성·함평을 연결하는 빛고를 메가시티 조성,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를 계기로 광주 중심 지방화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 광산구(軍)공항 이전 후 종전부지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개발로 광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광주전 시대'에서 '영산강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영산강 물길따라 인근 시·군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생태·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대전환의 3대 지향점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산업, 녹색경제 등을 기반으로 한 '그린도시'와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 등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도시', 높고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도시'를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례적으로 '편'에 방점을 찍은 점이다. 그린과 스마트는 민선7기 내내 시정의 핵심축으로 추

진,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둔 반면 우선시 급한 현안에 매달리다보니 재미난 도시, 찾아오는 도시, 랜드마크 도시를 만드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는 자책 진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 시장은 "임기 절반을 코로나와 싸움으로 보내 역olum한 측면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편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파리 에펠탑이나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랜드마크는 물론 쇼핑 측면에서도 참고형 할인 매장이거나 대형 유통업체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전제로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 테마 놀이공원 등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에 강수미 대표

(마이크로맥스)

미생물 활용 기술로 품미 깊은 커피  
국내 단일농장 최대 규모 유리 온실  
2만그루 커피나무 자연순환농법 재배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미생물활용커피 가공기술을 특허받아 품미 깊은 국산커피를 생산하는 강수미 나주마이크로맥스 영농조합법인 대표를 11월 농촌융복합산업인으로 선정했다.

마이크로맥스는 미생물을 활용해 가축 사체 처리 환경 개선제를 제조·판매하는 본점을 나주 남평읍에 두고, 커피 재배농장과 가공·판매·교육을 하는 커피연구소를 화순 도곡면에서 운영하는 6차산업 인증경영체다.

강 대표는 일찍이 평소 관심이 많은 커피가 지구 온난화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자체 연구한 환경 기술을 접목해 스페셜티커피 가공기술을 개발한다면 국산커피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해 20여 년 전부터 커피 나무를 재배했다.

커피 재배가 익숙하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어렵게 구한 커피나무가 죽는 일이 많았다.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국내 단일농장 최대 규모의 유리온실 1.8ha



농촌융복합산업인 마이크로맥스 강수미 대표(왼쪽) /전남도청

에서 2만여 그루 커피나무를 자연순환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마이크로맥스의 커피는 자체 보유한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하고, 무산소가공으로 향미를 만든 후, 특허출원한 나노기포를 이용해 조임계 추출로 향미를 배가하기 때문에 품미가 깊다.

강 대표는 국내에서 최고급 커피를 생산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커피 추출 방법과 커피 맛의 품미를 향상하기 위한 16개의 특허와 2건의 특허출원이 이를 증명한다.

마이크로맥스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기 위해 화순 도곡면에 카페 '두메이커피'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곡성 조리과 학교등학교, 호남 원예고등학교, 광주

대학교와 연계해 커피 재배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 대표는 "커피는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만큼 무한한 시장성을 갖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전문 브랜드로 키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마이크로맥스는 직접 제조·가공한 우수 제품을 판매할 뿐 아니라 체험,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며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가 확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영양군,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2022년 본예산 3456억

경북 영양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022년 본예산 3456억원을 편성해 영양군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전년대비 315억원(10.03%) 증가한 수치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8억원(8.37%) 증가한 3,080억원, 특별회계가 77억원(25.75%) 증가한 376억원이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비상경제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농어촌의 소득 향상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하고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성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농어민수당지원(22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9억원) ▲경북형자은정원(클라인가르텐)조성사업(44억원) ▲이야기가있는 선바위관광지조성사업(19억원) ▲영양도서관건립(13억원) ▲살아있는체형형고추전시관건립(16억원) ▲반딧불이생태쇼관광화사업(20억원) ▲청기면다목적체육관건립공사(20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12억원) ▲영양·입암통합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53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광양시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광양시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자 중 올해 상반기 에너지사용량을 감축한 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 참여자에 대해 과거 2년간 같은 월평균 에너지사용량과 현재 에너지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5% 이상 10% 미만 연간 최대 3만 5천 원 10% 이상 15% 미만 연간 최대 7만 원 15% 이상 연간 최대 10만 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간 2회 지급한다.

2021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결과, 30년산 소나무 16만 7000그루를 심은 효과이다. /전남=김용화 기자 jijacecom@

## 광주시, AI 생태계 핵심거점 조성 '첫삽'

산업융합 집적단지 착공식

광주광역시시는 집적단지의 각종 인프라와 건물 등을 조성하기 위한 첫삽을 뜨는 착공식을 개최해 '인공지능 중심 도시 광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22일 열린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착공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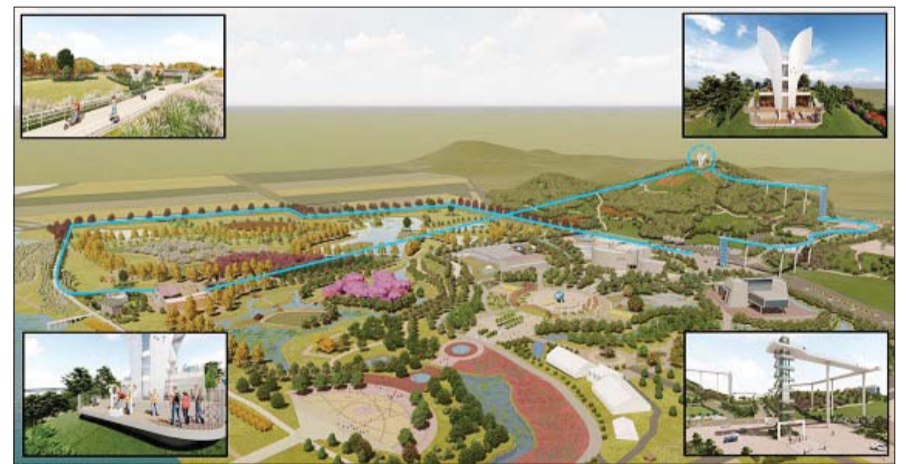
지난 2019년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국가전략에 이어, 디지털 뉴딜 등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광주광역시와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실증 환경, 창업환경 등이 집약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집적단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2019년)'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4000여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의 인프라, 기업, 인재 등이 집약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집적단지 시설은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내의 1공구에 대지 4만 725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7층의 실증동 및 창업동, 지상 2층의 데이터센터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되며,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집적단지의 핵심인프라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연산량 88.5PF(1초에 1000조번 연산 가능) 규모로서, 대규모 데이터의 수집·축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도구와 인공지능 반도체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등 세계적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앞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2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를 '최첨단 국가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함평천지길 일원에 조성되는 체험관광 시설 예상 조감도 이미지

## 함평군 함평천지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온힘'

사업 설명회 내일 개최

전남 함평군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함평천지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 군민과 머리를 맞댄다.

함평군은 22일 "함평천지 체험관광 인프라 조성사업 설명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장, 번영회장, 이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초 엑스포공원과 화양근린공원, 함평천 생태습지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결해 6km의 도보길인 '함평천지길'을 조성했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함평천지길 일원에 전망타워, 스카이워크, 외줄이동타기, e-모빌리티 등의 체험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김태수 기자